글로벌 한국불교 조명 연구·강의 '본격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수주

한중연서 5년간 50억 지원
불교 통해 韓 국제성 조명
연구·온라인강좌 제작진행
국내외 최고 전문가 참여해
"한국불교 세계화 일조기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불교적 시각으로 한국의 국제성을 조명하는 연구와 강의를 추진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지원하는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에 선정됐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향후 5년 동안 50억 원(연간 10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 사업을 수행한다.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류를 이은 한국학의 온라인 세계화를 위해 기획된 대규모 학술사업이다. 10개 선정 사업팀의 주제별 영역은 △한국사 △한국어문 △한국 철학과 종교 △한국의 경제와 외교 등이다. 이중 특정 분야로 들어간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철학과 종교영역)가 유일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 2개씩 선정됐다. 동국대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는 각 1개 사업단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술원 내에 'K학술확산연구소'가 신설된다. 소장은 김종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맡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K학술확산연구소'는 향후 5년간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 50개(강좌당 100개 강의)를 제작하게 된다.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는 △1단계(1~3년) Glocal Korean Buddhism: Locality and Globality △2단계(4~5년) Post-glocality: Now and Future in Korean Buddhism을 아젠다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와 전통(1년차) △언어와 문화(2년차) △인물과 사상(3년차) △사회와 일상(4년차) △세계와 미래(5년차)를 주제로 연간 10개씩, 총 50개의 온라인 MOOK 강좌가 개설된다. 이 강좌는 정부의 K-MOOK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한국불교를 아프리카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간 10개의 강좌(60분 100개 강의)는 한국불교를 처음 접하는 세계 유수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나아가 일반인들을 위해 △초급(3개) △중급(4개) △고급(3개)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 각 전공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 교수진이 한국어나 영어, 기타 모국어로 강의를 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한국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불어로 된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또,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나 테스트 문제도 가이드북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연구책임자 김종욱 교수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지역적 고유성과 함께 불교의 장점인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계의 역량을 모아 특수와 보편이 어우러진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를 발굴하고 그것을 500개 강의에 담아 전 세계에 한국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불교의 미래 전망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 지구적 관점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어떤 비전을 갖는지 누구나 공감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으로서 불교학의 기반을 넓히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는 세계인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이제 비로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진정으로 한국불교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한류 열풍에 이어 앞으로 한국학 그중에서도 한국불교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미디어 속 붓다 전기는

최원섭 교수, 동국대 불문사硏 학술대회서 살펴

부처님의 일대기는 신화와 역사 사이에서 공간과 시대를 넘어 전래됐다. 현대 미디어 속 붓다 전기를 조명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최원섭 동국대 경주캠퍼스 외래교수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이 6월 18일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전기(佛傳)의 변용 양상: 붓다전기의 한국적 형성화 과정의 전(前) 이해 Ⅱ'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현대 미디어 속 붓다 전기들의 표현 양상을 살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근대기 붓다 전기는 팔상성도 중심의 전통적 붓다관과 근대적 붓다관으로 구분된다. 근대적 붓다관이 확인되는 저술은 '가찬 석존전' '인신 불타의 석존전 대요', '석존일대가' 등인데, 이들에서는 전생담이나 신이한 부분이 삭제된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 미디어에서 확인되는 붓다 전기의 예로는 장호일 감독의 영화 〈석가모니(1964)〉와 조계종 포교원의 의뢰로 2008년 제작돼 K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붓다〉다. 최 교수는 영화 〈석가모니〉가 근대적 붓다관을 담아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붓다〉는 전통과 근대적 붓다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봤다.

영화 〈석가모니〉에 대해 최 교수는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을 강조하며 역사물로서의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근대적 붓다관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헐리우드 대작 영화 분위기를 노리는 상업영화라는 측면에서 불교적 주제의식이나 전기의 표현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애니메이션 〈붓다〉에 대해서는 "한국 불교신자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붓다 전기의 다소 신이적인 장면을 구현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신비로운 모습이나 기적처럼 보이는 장면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남방상좌부불교에 있어 붓다전기의 형성화와 그 특징(황순일, 동국대) △보여주고 들려주신 붓다 고사 △돈황본(八相變) 고찰(정광훈, 금강대) △한국 불교에서 붓다전기 표현의 특징-팔상도를 중심으로(석길암, 동국대 경주)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현존 유일 초대형 삼신불상 '국보' 승격

화엄사 목조삼신불좌상 지정
울진 불영사 불영 등 보물로
회암사지사리탑 보물로 승격

현존 유일 3m 초대형 삼신불상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보물 제1548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울진 불영사 불연',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송시열 초상'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국보된 화엄사의 삼신불좌상. 사진 왼쪽부터 석가모니불(왼쪽), 비로자나불(주불), 노사나불(오른쪽)의 모습.

국보로 승격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이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의미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이다.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상으로는 화엄사 사례가 유일하다. 삼신불좌상은 지난 2008년 보물로 지정돼 17세기 불교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모두 3m가 넘는 초대형 불상으로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1635년(인조 13) 당대 유명한 조각승인 청헌(淸軒)과 응원(應元), 인균(印均)을 비롯해 이들의 제자들이 만든 17세기의 대표적 불교조각이다.

발원문에 의하면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역임한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의 주관 아래 선조(재위 1567~1608)의 8번째 아들 의창군 이광(李珖, 1589~1645) 부부와 선조의 사위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부부 등 다수의 왕실 인물과 승려 580여 명을 포함한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이 삼신불상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조각승 집단인 청헌파와 응원·인균파가 참여한 만큼 표현에서도 각 유파(流派)의 조각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승격되는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청헌, 응원, 인균과 제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완성한 기념비적인 대작(大作)"이라고 평가했다.

보물로 지정된 '울진 불영사 불연'은 1670년(현종 11) 화원(畵員)으로 추정되는 광현(廣玄), 성열(性悅), 덕진(德眞) 등이 참여해 조성한 2기의 불교의례용 가마다.

보물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1656년(효종 7) 만들어진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큰 작품이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6월 2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과 전북도 유형문화재 '무주 한풍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이하 사리탑)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발원하여 건립한 진신사리탑으로 규모가 장대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사리탑의 형식과 불교미술의 도상, 장식문양 등 왕실불교미술의 여러 요소를 알 수 있는 귀중한 탑이다.

문화재청은 "사리탑의 규모, 치석 상태, 결구 수법 등을 고려할 때 당대 최고의 석공이 설계·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화재는 조선 전기 석조미술의 정수이자 대표작으로 역사, 학술, 조형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운장암 금동보살상 면면 살핀다

한국미술사연구소, 6월 25일 학술대회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은 지정 당시 철불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금동제로 제작됐음이 확인돼 명칭이 변경됐다. 조성 시기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보지만, 양식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미술사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운장암 금동보살상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양식과 중수자, 복장품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도상학과 수조각승 석준의 중수 연구'를 기조발표하며, 고승희 동국대 교수가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복장품 연구'를, 한병일 한국문화재연구원장이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상의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주제발표의 토론자로는 안희숙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동국대 강사)과 주수완 우석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